

박형준 / 2월+3월 / 도약 GS / 2회									응시인원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529059	20.7	13.5	19	10	63.2	1	2.13%	7	47
534241	20.7	13.5	17.7	6.5	58.4	2	4.26%	7	
534451	20.5	13	13.7	9	56.2	3	6.38%	6	
534251	19.5	12.5	15.2	8	55.2	4	8.51%	6	
534391	19.5	12.5	14.2	8	54.2	5	10.64%	5	
529129	19.5	11.5	16	6.5	53.5	6	12.77%	6	
534381	19.5	14	13.7	5.5	52.7	7	14.89%	6	
529165	19.5	12	14	7	52.5	8	17.02%	6	
534165	19	12	12.5	9	52.5	8	17.02%	5	
536429	19.7	11.5	13.2	8	52.4	10	21.28%	5	
534160	19	11.5	17	4.5	52	11	23.40%	5	
534347	18	12.5	13.5	8	52	11	23.40%	5	
534231	20	12.5	12.5	6	51	13	27.66%	6	
534161	19.5	12.5	11.7	6.5	50.2	14	29.79%	5	
534162	18.5	12.5	13.9	5	49.9	15	31.91%	5	
534196	19	10	15	5	49	16	34.04%	5	
529237	19	11	11.7	7	48.7	17	36.17%	5	
534365	19.9	12	10.7	6	48.6	18	38.30%	5	
534348	19.5	11.5	12.5	5	48.5	19	40.43%	5	
534194	18	12.5	11.4	6	47.9	20	42.55%	4	
534175	19.7	13	10	5	47.7	21	44.68%	5	
534233	20	12	9.7	6	47.7	21	44.68%	5	
534423	19.5	10	11.9	6	47.4	23	48.94%	5	
534166	19	11.5	11.5	5	47	24	51.06%	5	
534358	19.5	11	13	3.5	47	24	51.06%	5	
534205	15.5	13	12.2	6	46.7	26	55.32%	4	
534355	16.5	12	12.5	5.5	46.5	27	57.45%	5	
534514	19.4	10.5	10	6.5	46.4	28	59.57%	5	
535354	20.3	11.5	10.5	4	46.3	29	61.70%	5	
534250	18.5	10.5	13	4	46	30	63.83%	5	
534202	19.5	12	10.4	4	45.9	31	65.96%	5	
534426	18.9	12.5	9.7	4.5	45.6	32	68.09%	4	
529277	16.5	12.5	12.5	4	45.5	33	70.21%	5	
534343	15.5	12	9.9	7	44.4	34	72.34%	5	
534188	17.5	11	9	6	43.5	35	74.47%	5	
529283	18.4	11	7.5	5.7	42.6	36	76.60%	5	
534174	19.5	3	15.5	4.5	42.5	37	78.72%	5	
534425	19.5	12	6	2.5	40	38	80.85%	5	
534203	18	10.5	10.2	0	38.7	39	82.98%	5	
534247	14.5	11.5	8.5	4	38.5	40	85.11%	5	
528987	18	8.5	9.5	2	38	41	87.23%	4	
534396	18.5	10	8.5	0	37	42	89.36%	5	
534499	19.8	9	7.7	0	36.5	43	91.49%	5	
534163	16.5	11.5	8	0	36	44	93.62%	5	
534468	13	8	10	4.5	35.5	45	95.74%	4	
536423	17.7	12.5	0	0	30.2	46	97.87%	6	
534398	17.5	0	6.5	0	24	47	100.00%	6	

박형준/2월/도약GS/2회/1번	채점자
	이정은
<p>1. 전반적인 총평</p> <p>논점이 주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판례 기재와 판례 키워드 유무 및 사안포섭으로 점수가 갈린 문제입니다.</p> <p>사안포섭 안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판례 기재가 완벽해도 사안포섭 없으면 감점됩니다. 사안포섭 하셔야합니다.</p> <p>판례 두꺼운 경우에는 강사님 답안지처럼 목차 분리하는 것이 점수 받기에 용이합니다.</p> <p>10점당 7점을 만점으로 채점했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물건발명 > 형식적재현 / 효과관련문제 로 목차 및 판례 암기해주세요.</p> <p>판단기준 판례를 거의 똑같이 쓰신 분들이 많았습니다.</p> <p>(2) 설문 2</p> <p>전합 판례 외에 보충의견도 쓰신 분들에게 추가점수 드렸습니다.</p> <p>암기 정확도 올려주세요.</p> <p>(3) 설문 3</p> <p>뒷받침요건 판단기준 판례를 특히 암기가 미숙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p> <p>사안포섭의 경우에도 목차 나누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p>	

(4) 설문 4

바람직하게는 판례 암기 정확도가 아쉬웠습니다. 판례 흐름을 외우고, 그 흐름을 따라서 사안포섭도 하면 좋겠습니다.

3. 소결

아직 2월이라 암기가 아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 자체는 판례 타겟팅이 되어있고, 논점이탈할 수 없도록 출제되어서 변별력이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등수에 신경쓰기보다는, 누락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형준/2월/도약GS/2회/2번	채점자
	이정은
<p>1. 전반적인 총평</p> <p>20점 통 문제로 기재불비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기재불비를 누락한 개수가 가장 큰 채점요인이었으며, 똑같은 개수의 기재불비를 찾았더라도, 조문 누락한 경우에는 감점 있었습니다.</p> <p>줄글로 쓰기보다는, 목차로 기재불비사유나 조문을 기재해주시는 것이 점수 받기에 용이합니다.</p> <p>강사님 답안지 참고해서 답안을 숙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기재불비 사유에 따른 조문을 누락하거나 잘못 쓰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기인용 > 42조 8항, 시행령 5조7항 , 42조 4항 2호 위반입니다.</p> <p>기본서에 적어두고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다른 분들이 대부분 시행령까지 답안현출해주시기 때문에, 42조 뿐만 아니라 시행령까지도 언급해주시는 것이 답안지 인상 좋게 느껴졌습니다.</p> <p>단일성문제, 종속항 문제도 언급해주시면 추가점수드렸습니다.</p> <p>해당 문제는 기재불비 사유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론을 너무 길게 하기 보다는 기재불비 사유에 따른 포섭 길게 해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p> <p>3. 소결</p> <p>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시험장에서 마주한다면 당황할 법한 문제입니다.</p> <p>해당 문제는 기재불비 누락하지 않도록 목차 잡는 시간동안 충분히 기재불비 사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p>	

박형준/2월/도약GS/2회/3번	채점자
	윤영우
<p>1. 전반적인 총평</p> <p>우선권주장과 공지에외주장을 논점으로 하는 문제였습니다.</p> <p>까다롭지 않았기에 대부분 정답을 잘 맞춰주셨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국내우선권주장의 판단시점 소급범위’ 판례를 누락한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p> <p>설문에서 출원의 판단 시점을 물어볼 때 주 논점이 될 수 있기에 잘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p> <p>판례의 키워드인 “명시적 기재”, “마찬가지라고 이해”를 포함하여 사안 포섭한 분들에게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또한, 우선권주장 적부를 길게 작성한 분들이 계셨는데, 주 논점이 아니므로 가볍게 짚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p> <p>(2) 설문 2</p> <p>설문 1과 마찬가지로 판례를 누락한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p> <p>설문 1의 판례와 거의 동일한 판례이므로 함께 암기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p> <p>마찬가지로, 판례의 키워드를 포함하여 사안 포섭한 분들에게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3) 설문 3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주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가지 특허요건을 골고루 판단하신 분들께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출원일체의 원칙을 작성한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출원일체의 원칙의 경우 두 청구항 중 하나의 청구항에만 거절이유가 있을 때 논점이 되는 것이므로 따로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4) 설문 4

설문 3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 특허요건을 골고루 판단하신 분들께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확대된 선출원주의를 누락한 분이 많이 계셨는데, 이번 기회에 잘 짚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3. 소결

문제-3과 같이 낱짜가 많이 나오는 문제는 낱짜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한 다음에 타임라인을 그리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정답을 틀린 분이 몇몇 계셨는데, 문제-3과 같이 정답이 명확한 문제는 정답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정답을 확실하게 한 후에 답안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박형준/2월/도약GS/1회/4번	채점자
	윤영우
<p>1. 전반적인 총평</p> <p>비교적 기본적인 조치 문제로, 대부분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각적인 조치를 물어보는 경우 하나의 조치를 풍부하게 쓰는 것보다는 여러 조치를 간단하게 써주셔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조치를 물어보는 경우 거절이유통지의 절차적*실체적 위법 여부를 간단히라도 짚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p> <p>‘결합발명의 진보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한 분이 많이 계셨는데, 문제에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주어지지 않았고, 묻는 바가 다각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점수를 거의 드리지 않았습니다.</p> <p>(2) 설문 2</p> <p>변경출원, 삭제 보정 재심사,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하여 골고루 작성하신 분들께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마찬가지로, 거절결정에 대한 조치를 물어보는 경우 거절결정의 절차적*실체적 위법 여부를 간단히라도 짚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p> <p>설문 (1), (2) 공통적으로 분할출원, 삭제 보정 등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특정하지 않은 분이 종종 계셨는데, 대상 발명을 명확히 특정해 주셔야 합니다.</p> <p>3. 소결</p> <p>다각적 조치를 물어봤으므로 최대한 다각적으로 조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면 일반론을 아예 안 쓰더라도 사안 포섭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p> <p>거절이유통지, 거절결정에 대한 조치 문제는 기본적인 조치 문제로 확실하게 복습하고 답안에 나온 조치 정도는 암기해 놓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p>	

<문제-1>

I. 섣문 (1)

42

1. 용이 실시 요건 의의. 취지 - 法 4223항 1

특허는 공개의 대가인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2. 판단기준 제1항

발명의 설명을 기재한 때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 시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도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3. 물건 발명인 경우 제1항

(1) 형식적 재현

물건 발명의 실시는 물건을 생산·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물건 발명의 용이 실시 요건 충족 여부는 판단할 때에는 통상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도 물건을 생산·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2) 효과 관련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면 볼 때 충족한다.

4. 사안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효과를 증명하는 실험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용이성이나 위험으로 볼 수는 없다. 당업자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 기재된 효과 그 효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볼 것이 충족하나 그렇지 않으면 볼 것이 위험이다.

II. 사실 (2)

6.3

1. 배경기술 기재 의의. 제지-技術2382828

심사관의 이용도로는 위해,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적 사실 등을 포함한다.

2. 당해 출원에 기재된 것

(1) 종래 기재

배경기술로 명시적으로 기재된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지기술 지위를 가진다.

(2) 전함 기재

배경기술 기재 요건은 심사의 용이성 및 공중의 이용도 등을 위한 규정으로서 배경기술은 공지되었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배경기술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전함 기재 발명의

공지기술 또는 배경기술에 기재한지 여부는 출원인의

의사에 달린 바 기재위치만을 통해 공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사실에 위배되는 결과를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지기술로 볼 수 없다.

(4) 검토

명세서의 지위, 배경기술 기재 범위 방지 등을 위해 제1항 제1항에 해당한다.

3. 타 측원에 기재된 경우

(1) 제1항

① 공지될 것으로 보는 제1항에, ② 공지될 것으로 보지 않는 제1항에 존재한다.

(2) 검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지될 것으로 보지 않는 제1항에 해당한다.

4. 사안

명세서에 배경기술로 기재된 사항만으로 공지기술 지위를 가질 수 없다.

III. 식문 (3)

1. 뒷발칭 요건 - 식 422 423 424

특허는 공개의 대가인바, 청구범위는 발명의 식문에 의해 뒷발칭된 것을 요한다.

2. 판단기준 제1항



(1) 제42조 3항 제1호의 개정

특발성 요건은 발명의 실명이 쉽게 산출할 수 있도록 생
 세히 적은지 판단하는 제42조 3항 제1호 달리 판단되
 어야 하며

(2) 형식적 대응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실명에 기재되어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3) 너무 넓은 청구항에 대한 대책

발명의 실명에 개시된 발명이 청구범위에 개시된 발
 명으로 확장 내지 일반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해야 한다.

3. 단순 복제된 경우 배제

제42조 4항 제1호 충족 여부는 제42조 3항 제1호 충족 여부
 라는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 구성의 의미 및 그 구현 방법을 이해한
 수 있었던 사안에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 구성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실명에
 임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용의성요건 충족 문제는
 별개로 하고 특발성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COMPTON)

4. 사안

특발성 요건 판단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
 되는 사항이 발명의 실명에 기재될지 여부를 기준

사안취급특위사건기록

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일 구성 의미 및 구현 방법
이 이해할 수 있더라도 그 사안이 발명의 명칭에
당연하게 기재될 경우에는 뒷받침 요건 충족한다.

IV. 심문 (A)

5.1

1. 명확성 요건 - 청구범위

청구범위의 구성. 청구범위 명칭을 고려할 때, 청구범위
이는 발명이 명확하고 구체화하기 쉬운 것을 요한다.

2. 판단기준 제시

(1) 원칙

법 91조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안에 의해 특허
발명 보호범위가 정해진다고 보는 바, 청구범위에 발
명의 구성을 불명확하게 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판단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명확하고 구체화하기 쉬운
것인지 여부 판단시에는 청구범위 기재된 용어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는
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3. "바람직하게는" 제시

법 91조에서 청구범위를 명확하고 구체화하기
제해있는 것은 요하는 바, 상용개념과 하위개념이

"바람직하게는"으로 연결된 경우 상위개념 전체를 의미하는지 상위개념 중 하위개념만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와 같이 발명이 관습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명확성 원칙 위반이다.

4. 사안

① "바람직하게는" 용어 자체만으로 명확성 요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다만 발명의 설명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만 적혀있고 이는 관습에 따라 상위개념 전체 또는 하위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발명이 명확히 설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따라서 명확성 요건 위반이다.

<결>

50.1

〈문제-2〉

~~I. 사실 (1)~~

1. 관련 규정

(1) 뒷발칭 요건 - 법 4224항 1호

특허는 공개의 대가인바, 발명의 실용성에 의해 청구범위가 뒷발칭되어야 한다.

(2) 명확성 요건 - 법 4224항 2호

청구범위의 권리사. 권리사상서 명할 고려한 때, 청구범위에 는 발명이 명확. 가결하게 정해 있는 것은 아니다.

(3) 청구범위 기재방법 - 법 422 항, 제 52

- ① 다른 청구항 인용시 대문자로 기재해야 한다. (제 525항)
- ② 인용되는 항을 인용하는 항보다 먼저 기재해야 한다 (제 521항)
- ③ 다중인용하는 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 526항)

2. 청구항 1

별다른 형질 보이지 않는다.

3. 청구항 2

(1)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라는 단어는 관습에 따라 어떻게 지브른 의미하는지 유형 어떻게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 으므로 법 4224항 2호 위반이다.

(2) "유형"

발명의 실용성에 유형 어떻게 기재 되었으므로 법 422

4항 1호 위반이다.

4. 청구항 3

(1) "밀"

태양광 기재가 아니므로 청4228항, 청52 5항 위반이다.

(2) "청구항 1"

인용되는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청4228항, 청52 1항 위반이다.

(3) "목조이용 고목주"

반영의 설명에 목조이용 고목주 기재 없으므로 청4224항1호 위반이다.

5. 청구항 4

미끄럼 방지구조에 대한 기재가 반영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4224항1호 위반이다.

6. 청구항 5

(1) "청구항 4" 인용

청구항 5는 다중인용, 청구항4가 인용하는 청구항 3이 다중인용하여 결과적으로 다중인용 하고 있으므로 청4228항, 청52 6항 위반이다.

(2) "청구항 5" 인용

자기인용으로 청4224항2호 및 청4228항, 청52 ~~6~~ 1항 위반이다.



(3) "한글광학 (주)"

상표 등을 기재하는 경우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특4224062에 위반이다.

(4) 카테이리 문제

청구항 1, 4 항항은 모두 알경인데 비하여 5항항은 알경의 제2항항은 청구항에 있으므로 특4224062에 위반이다.

7. 청구항 6

공정을 각각 나누어 표시하기 위해 행은 바꿈어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별다른 흠결 없다.

8. 청구항 7

인용항은 방법이고 청구항은 알경 (물건) 으로서 카테이리 문제될 수 있으나 이러한 기재는 독립항으로서 허용된다.

9. 대항상 문제

모두 알경에 대한 발명이 해당하고, 알경에 대한 기결 선행기술 제시되어 있지 않아 대항상 충족된다.

10. 종속항 문제

종속항은 인용항의 형식을 그대로 표상하고 있는 수 있다.

간이정리!!! (7.5)



<문제-3>

I. 서문 (1) 4.5

1. 국내 유시권 주장 - 3552

2약유시권주장과 1의 균형. 개량발명 보호를 위해 2조
요건 하 판단시점 공급시켜주는 제도이다.

2. 요건. 절차

선출권 계속 중인 경우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이
기재된 범위에서 1년 내 출원해
야 한다.

3. 효과

선출권자의 신규성. 진보성. 공지예외주장 시기점 요건
등 판단시점 소급된다.

4. 부본유시권 주장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만 요건 충족되는 경우 유시
주장 자체가 부당법한 것이 아니라 일부 청구항
에 대해서만 판단시점 소급된다.

5. 사항

(1) 유시권 주장 방법

선출권일인 2011.1.15부터 1년 내 출원했고 다른
항아 불이치 않아 정당하다.

(2) A 판단시점

A는 선출권일인 S의 명세서로 기재된 사항

이D3 판단시점이 "2021. 1. 15"를 2급한다.

(3) A+B 판단시점

A+B는 신출원 S 최초 명세서 등이 명세서
기재되었거나 특정 기술자가 이타 마찬가지로 이
해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20
21. 9. 15" 시점에서 판단한다.

II. 실문 (2) **5.0**

1. 특허법 제 24조 - 1항

발명의 공제명 보호를 위해, 신출원 하에 판단
시점을 2급시켜주는 제도이다.

2. 신.진차

① 신출원이 최초 명세서 기재되는 경우 신출원
의 최초 명세서 등 범위에서 1년 내 출원
최초 명세서로부터 1년 내 출원할 것을 요한다.

② 출원시 특지를 기재하고 최초 출원 국가, 최초
출원 인자가 기재된 증명서류를 최초 명세서로부터
1년 4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

3. 후과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의 특대될 신출원의 등
판단시점 2급된다.

4. 최초 명세서 등의 의미 해설

판단시점 2급으로 인한 제3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55조 국내우선권 주장과 같은 취지에서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란 최초 명세서 등
 이 명세서으로 기재된 사항 뿐만 아니라 통
 상 기술자가 그와 바차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될 것을 말한다.

5. 우선권주장

일부 청구항에만 또한 충족 시 우선권주장 자체가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구항만 판단시점
2급 효과가 있다.

6. 사안

(1) 우선권주장 적부

2은 최초출원인 ~~2020~~ 2020.11.15로부터 1년
 내 출원했고 다른 요건 충족 사항 보이지 않
 으므로 우선권주장 성립한다.

(2) A

A는 최초출원 Q에 명세서으로 기재된 사항이
 으 판단시점 "2020.11.15"를 적용한다

(3) A+B

A+B는 최초출원 Q에 명세서으로 기재됐거나
 통상 기술자가 이와 바차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
 는 범위가 아니므로 우선권주장충족임인

"2021.10.15" 기준으로 판단한다.

II. 서문 (3) 4.5

1. 관련 특허요건

① 신규성 - 법 29조 1항

특허는 공개의 대가 인바, ~~출원발명~~은 선행기술과
생략해야 한다.

② 진보성 - 법 29조 2항

~~특허~~ 기술발견. 산업촉진 위해 ~~출원발명~~은 선행기술로
비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한다.

③ 실용성 - 법 36조 1항

중복 특허 배제를 위해, 이원자 출원 정합 시 후
원 등록 불가하다.

④ 학대될 실용성 - 법 29조 3항

실용성의 보충으로서, 실용을 하도 명세서 등 기재
된 발명을 등록불가하다.

2. 사안

(1) A 등록가부

甲의 2020. 8. 15 판매행위로 인해 신규성 위
반되어 등록 불가하다.

(2) A+B 등록가부

① 甲의 2020. 8. 15 판매행위로 인해 A가 공시

되었고 A+B는 A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 위반이다

② 甲의 출원 P가 Z 출원 R보다 먼저 출원되었으므로 선행기술의 및 확대된 선행기술의 위반이다.

(3) 결론 Z 출원 R은
A, A+B 모두 거절이유 있어 등록 불가하다.

IV. 실용 (4) 5.0

1. 공시예외장 - 法30조

출원인 보호를 위해, 이미 사전 만족 시 공시된 발명을 공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주는 규정이다.

2. 요건. 절차

출원인 의사에 의한 공시일 경우 권리자의 공시로부터 1년 내 출원하고, 출원시 청구 기재 및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 제출해야 한다. 등록 때까지 보호 가능하다. (法30조3항)

3. 효과

공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공시 예외 효과 결과

(1) A

A의 판단시점이 2021.1.15를 넘길바 공시일인

	2020.8.15로부터 1년 내 출원했으므로 공시예외 주장 허락이 미친다
(2) A+B	A+B는 파일시점 소급되지 않으므로 2021.9.15 기준으로 공시일로부터 1년 지났으므로 공시예외 허락 미치지 않는다
5. 등록 가부	
(1) A	공시 예외 주장으로 신규성, 진보성 문제는 없음 2 의 출원 및 계약우선권 주장에 따라 신출원 이 결재하므로 신출원 의, 확대된 신출원 의 위배이 다
(2) A+B	신출원 이 없어 신출원 의, 확대된 신출원 의 위배는 아니지만, 공시 예외 주장 허락이 미치 지 않는 바 2020.8.15 후 甲의 A 공개로 인해 A 공시되었고, A+B는 A와 중합하지는 않으나 A로부터 쉽게 변형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 위배이다
(3) 결론	A, A+B 모두 거절이유 있으므로 甲 출원 P 등록 불가하다.

문제-47

I. 실문 (1) 5.5

1. 거절이유통지 타당성 검토

(1) 절차적 문제

실문에서 절차적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

(2) 실체적 문제

1) 관련 규정 - 法 29조 2항

기술발견촉진을 위해, 출원발명은 시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사안의 경우

甲은 시행발명 A에 의해 A+B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바, A+B가 A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며 거절이유통지 타당하고, 그렇지 않다면 거절이유통지 부당하다.

2. 거절이유통지 타당한 경우 2지

(1) 변경촉진 - 실용신안법 10조

甲의 발명 A+B가 A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극히 쉽지 않음을 주장하며 ~~A+B~~ 변경촉진할 수 있다. A+B는 물건이므로 실용신안 대상이 된다. 다만 A+B+C의 권리 확보를 위해 A+B+C 분할촉진 후 변경촉진함이

좋다.

GOOD

(2) 보정 - 法 41조

진보성 보정의 거절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A+B+C$ 의 권리확보를 위해 $A+B$ 를 삭제하는 보정을 통해 등록받을 수 있다. 이때 보정은 거절이유를 지워야 제출기간 내 가능하다.

(3) 가치 별 차이

발명충족의 경우 실용신안으로 보호기간이 짧은 단점이 있으나 삭제 보정의 경우에는 $A+B$ 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발명충족이 더욱 유리하다.

3. 거절이유를 지워 부당할 경우 가치

(1) 의견서 제출

$A+B$ 는 A 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있고, $A+B$ 는 A 라는 다른 현저한 효과가 인정될 수 있고, 해결문제가 A 와 B 의 결합을 암시하거나 그를 위한 동기 등이 제시되지 않은 바 진보성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분할출원 - 法 52조

$A+B$ 의 진보성을 다투는 동안 거절이유가 없는 $A+B+C$ 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위해 $A+B+C$ 분할 출원을 할 수 있다.



I. 설문 (2) 4.5

1. 거질결정 타당성

(1) 절차적 문제

사무상 절차적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

(2) 실적적 문제

앞서 살펴볼 바와 같이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거질결정은 부당하고,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거질결정 타당하다.

2. 거질결정 타당한 경우 조치

(1) 변경출원 - 실용신안법 10조

거질결정등을 송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변경출원
이 가능하므로 A로부터 A+B를 생각해내는
것이 극히 쉬운 것은 아님을 주장하여 ~~A+B~~
~~변경출원~~할 수 있다. 이때에도 A+B+C의
권리 확보를 위하여 A+B+C를 먼저 출원 후
변경출원이 가능하다.

(2) 재심사청구 - 제67조의2

특허거질결정등을 송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반론을 제출하
여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 A+B
를 삭제하는 반론을 제출하여 기간 내에 재심
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조치변 심의

변경출원시에는 존속기간이 짧은 실용신안으로도 보
 현받을 수 있으므로 변경출원이 더 유리하다.

3. 개제결정 불합격의 경우 조치

(1) 개제결정 불복심판 청구 - 법 132조의 11

개제결정등불 속달 3월 내에 개제결정 불복심판
 청구할 수 있으므로 甲은 이 심판을 청구하여
 A+B가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여 등록을
 도모해볼 수 있다.

(2) 불합출원 - 법 51조

개제이유가 없는 발명 A+B+C에 대해서 바
 른 등록을 위해 개제결정등불 속달일로부터 3월
 내에 $\neq A+B+C$ 불합출원 할 수 있다.

(3) 심결취(22조) . 분리출원

위 심판에서 기각결심이 내려지는 경우 甲
 은 심결취(22조 2항) (법 186조) 및 분리 A+B
 C에 대한 분리출원 할 수 있다.

- 이 하여 바 -

너무 잘 쓰셨어요!
 와썹합니다 :)

[문제-1] (특허법은 이하, 조.이라 한다.)

1. 실문(1)



1. 용이성서 요인 조.42로 3항 보

특허는 공계의 대기인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백한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

2. 새시제가 실시한 취지

출원인이 특허를 보호받라 하는 각국 비용과 범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함이다.

3. 판단기준 새시제

특수한 지식이나 과중한 실험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인서 기술내용에 입각해 명세서 기재로 보아 당해 발명을 광범하게 이해. 제한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해야 한다.

4. 문헌발명의 경우 새시제

(1) 문헌발명의 실시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문헌발명의 실시란 당해 특허발명을 생산. 사용하는 행위 등을 인권도바, 명세서의 기재로 보아 과중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인서 기술내용에 입각해

특허문헌을 생산·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

(2) 효과 문제

같은 구성 성분 등으로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 기재에 비추어 발명이 가지는 효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5. 사안의 해결

발명의 효과를 증명하는 실험자료가 없다면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면 용이한 요건을 충족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충족한다.

II. 실험 (2)

4. 2

1. 배경기술 기재 2.42로 3항 2호

실시예의 및 발명의 아예를 위해,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한 것을 요구한다.

2. 배경기술의 공개를 자위 행위

(1) 공개 행위

명세서에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로 기재하였던 공지 기술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였다.

(2) 전방 행위



명세서에 기재된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은 삽화면의 및 기술적 내용 이해에 필요한 설명기술이기는 하나, 그 자체가 특허성을 갖을 요건으로 하는 제형은 아니며, 따라서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로 기재된 것은 사실만으로 공개기술이 볼 수는 없다 한다.

(3) 결론

배경기술을 기재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관습 속해자가 하명한다.

3. 타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배경기술

(1) 속해제

과제 특허법인 속해제는 공개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며, 타출원은 공개물로 볼 수 없다는 특허법인 속해제가 존재한다.

(2) 결론

타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배경기술 역시 확인관계 되었
하는 등의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공개물로 인정
할 수 없다.

4. 결론

① 어느 경우, 기술이 공개되었는지는 공개 여부 증명되어야
하므로 (속해제). ② 배경기술로 명세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공기기술의 다위를 갖는다 할 수 없다.

III. 실험 (3)

6.3

1. 뒷받침 면 중 422 항 보

특히 공기 ^다 디자인바, 청구범위는 발명의 실행에 위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2. 판단기준 체계

(1) 용이성과 면리의 구별

청구범위가 발명의 실행에 위해 뒷받침되는지는 그 면리와 취를 달하는 422 항 보나 판단을 동일시해선 안 된다. 쉽게 발명을 쉽게 재현 이해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형식적 시프트 및 너무 넓은 청구항 판단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발명의 실행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따져야 하며, 나아가 발명의 실행에 기재된 내용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까지 확장. 일반적인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간접보제 사정 체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일 구성을 통상적 기술자가 발명의

실용 가치에 의해 결정하게 아예. 제원한 두 항목에서
조.42조 4항 1호 문제라면서 사정에서, 양의 방향을
 결정하게 아예. 제원 가능한 것은 용이성이 아닌 문제로서
 뒷받침 요건과 관련성이 한때, 위배는 문제인 인
 구성과 대응하는 사항이 양의 실용에 동일하게 가치에
 이 있다는 아예 조.42조 4항 1호를 충족시킨 것이다.

4. 사안의 해명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양의 실용 가치 대응에 의해
 해당항의 가치인 양의 인 양의 위배. 관련 방향을 이
 해하기 어렵다면, 그 인 구성과 대응하는 사항이 양의
 실용에 동일 가치인 이상 특정한 사항이 없는 한 뒷받침
 요건을 충족한다.

[V] 실용 (4)

1. 명백성 요건 조.42조 4항 2호

항상항의 존재여부. 존재의 유무를 고려할 때, 항상항
 위배는 양의 명백하고 간접하게 가치에야 한다.

2. 판단기준 위배

(1) 항상항의 기준 원리

② 973호 특허로 보호받으려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보호범위가 정해진다고 규정하므로, 청구범
위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 발명의
구성을 분명하게 하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용어만으로 관습 불화

다만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일시 기술상식에 기초하
여 명세서 전체의 기재로 보아 특허로 보호받으려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하여, 단순히 용어만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3. '바람직하게는' 사건 취지

청구범위에 발명이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으로 나뉘어 있는
용어인 '바람직하게는'으로 기술되어 있는 사건에서, 이와 같은
조항이 상위개념 전체를 가리키지 그 중에서도 하위개념만을
가리키는 해석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러한 관행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명확성 요건 위반이라 하였다.

4. 사안의 해명

① '바람직하게는'이라는 용어만으로 명확성 요건 위반이라 볼 수
없다. ② 관행에 따라 상위개념·하위개념 중 무엇을 특정
하든지 문제하고, ③ 발명의 설명에로 도입한 내용만 기재된

이 청구항의 발명이 명백하게 안된다. 명백성에
위반이다. [문]

20.9

[문제-2]

1. 관련 규정

(1) 특발성에 관한 조. 42조 4항 1호

특정한 공계의 디자인 바. 청구항위는 발명의 신명에 의해
특발성이어야 한다.

(2) 명백성 에 관한 조. 42조 4항 2호

청구항위의 규범적 목적과, 청구항위의 발명은 명백하고
간단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3) 다항제 기재방법 조. 42조 8항, 시행령 5조

여러항은 기재함에 있어 심의편의를 위해 그 기재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청구항 1의 흥건 종류 (조)

별다른 기재에 흥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청구항 2의 흥건 검토

(1) '신명적'은 '원형인' 명백성 문제



'신원작성'이 가 의미하는 바가 명백하지 않아 조.42로 4항 2호 명백성 위반이다.

(2) '원형인' 뒷받침 문제

아래가 원형인 경우 그 구성이 반정의 신빙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조.42로 4항 1호 뒷받침 위반이다.

4. 청구항 3의 총칭 심판

(1) '복합이용 고우주' 뒷받침 문제

반정의 신빙에 해당 구성에 관한 기재가 없어 조.42로 4항 1호 뒷받침 위반이다.

(2) 인용 문제

청구항 7의 인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행령 5로 1항 및 8항 위반이다.

5. 청구항 4의 총칭 심판

(1) '비밀 방화벽' 뒷받침 문제

반정의 신빙에 해당 구성에 관한 기재가 없어 조.42로 4항 1호 뒷받침 위반이다.

(3) 특정 인용 문제

인용하는 항은 '발'으로 인정하여 사행령 5로 5항의 특정한 인용 위반이다.

6. 항항 5의 항권 검토

(1) 자기이용 문제

항항 5, 즉 자기 이용 인용하는 것이 사행영 5로 7항 및 8항 위반에 해당한다.

(2) 카테그리 문제

인용하는 항은 '안정' 방법임에도 해당 항항 5는 '안정의 제로방법'을 항항하여 카테그리가 독립화하는 바, '조.42로 4항 2호 명백성'인 위반이다.

(3) 상업 제로 인용 문제

'한국은행 (주)'가 '생산물 제로라 하산상품'과 같은 상업적 이용에 따른 제로 인용은 '조.42로 4항 2호 명백성'인 위반이다.

7. 항항 6의 항권 검토 (조.42)

공정 신의에 따른 항항권은 기재물비에 해당 않는다.

8. 항항 7의 항권 검토 (조.42)

별다른 항권 없다.

9. 항항 문제

항항은 인용하는 것은 항의 항권을 그대로 존속한다.

10. 진위성 문제 풀이 (5차)

해당 항목상 반영률을 모두 반영 내리 반영제각 방법에
관한 것으로, 진위성 위반의 여부는 보아 않는다. [출]

U.5

[문제-3]

I. 선문(1)

4.0

1. 국무위원추천 조.55조

비리국민 등을 및 개광발영 보하는 위해, 선출인으로 인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는 제로이다.

2. 요건. 결과

① 국이 선출위원으로부터 1년 내에 선출된 특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추천하여야 하며, ② 추천사 처리
기재 및 선출위원의 권리를 얻는다 (조.55조 1항, 2항).

3. 결과

선출성. 진위성. 선출위원. 학제된 선출인 처리 및 선출위원
등을 판단할 때 선출인으로 인한 사정이 고려된다. (조.55조
2항)

4. 판단서명 조항의 위법성

제3자에게 복사의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은 보정권 마한
 가리므로, 신출권에 최후 권유된 명세서. 도면에 명세
적 기재가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 기술자로서
 보아 신출권으로 명세서. 도면에 명세적으로 기재된
 것과 아랑자이라고 인정할 수 있음 반증함이 판단서명
 조항을 받는다.

5. A의 해적

(1) 우선권제정 조항 (각주)

신출권 S의 출원일인 2021.1.15. 국회 11년 내에 출원되었
 고, 그의 우선권제정이 부합하는 사항도 받아 받는다.

위법 카운드로
판정하기요.

(2) 발명 A의 경우

이는 신출권 S의 최후 명세서. 도면에 기재된 발명
 과 동일하여 2021.1.15.로 판단서명이 받는다.

(3) 발명 A+B의 경우

A+B는 S의 최후 명세서. 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판단서명이 조항하 받으므로 2021.9.5.를 가므로
판정한다.

II. 신출 (2)

4.0

1. 조약위신권규정 조54조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조약당사국 상호 승인으로 관한 사항을 상호 서해하는 제로이다.

2. 요건. 권화

① 화신성·광개성을 갖는 조약당사국 특허인으로서 1년 내에 우리나라 특허청장이 기록하여야 하며, ② 이때 출원사 취지 기재 및 최초 출원 국가명 및 출원인의 기재를 명시, 화신으로 부터 1년 4인 내에 증명서 제출해야 한다. (조54조 발 내시 5항).

3. 하

신개성·권보성·신출원주의 및 허락된 신출원주의에 관한 제정이 화신으로 상호한다.

4. 판단서심 상호방위 제제

상호로 인해 제34조에 따르는 양심 수 있음은 국 내 신출원주의 마한바리이므로, 조약당사국 신출원에 최초로 청부된 명세서·요건의 명백 기재하였거나 명백으로 기재한 것과 마한바리나 동등의 기재가 출원 당해 기술특성에 비하여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5. 사안의 배경

(1) 우선권주상 작부 (각각)

마감에 출원한 Q의 출원인 2020.11.15.로부터 1년 내인
2021.10.15. 한쪽 출원인 위임인, 그 외 무작정인 사안이
보이지 않는다.

(2) 발명 A의 경우

Q의 최초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발명인 증명하여,
2020.11.15.로 특허사건 진상사안이 도출된다.

(3) 발명 A+B의 경우

A+B는 Q에 기재된 발명인 증명하여 나와, 진상사건
증거가 양호므로 2021.10.15.로 기준으로 진상사건

(실용 (3)과 실용 (4)의 중의 두개 이상이 양해 부속도임이다)

III. 실용 (4) 6.7

1. 공제에 ~~작성~~ 작성 항목 검토

(1) 공제에 작성 2020.30로

발명의 권리자에게로 및 출원인 ~~출원~~ 이익을 위해, 신제품.
권리상 진상사건에 있어 발명이 상해사건 양호로 되어 있다.

(2) 우선 - 우선에 관한 사항

공제가 최초로 이루어진 날로부터 1년 내에 출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제사건 제출을 받는다.

(3) 사안

① 발명 A는 2020.8.15.로부터 1년 미만인 2021.1.15.로
 만료일이 속하여 특허의 효력을 받을 수 있다.

② 발명 A+B는 2021.9.15.로 기한으로 만료하나, 최초 공
 개일은 2020.8.15.로부터 1년 이내에 공개되었으므로
 받을 수 있다.

출.

2. 관련 특이점

(1) 신규성 조.29조 1항

특허는 특허의 재가인바, 공개일과 동일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진보성 조.29조 2항

신용반발을 위해, 공개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산업상의 조.36조

중복특허에게는 위해, 산업상의 공익을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4) 특허권 조.29조 3항

산업상의 보상으로, 산업상의 명세에 기재된 발명을 공인
 한 발명을 등록 복제한다.

3. 특허 등록 가능성 검토

(1) 발명 A의 경우

① 여러 공개일예외규정으로 기한으로부터 신규성 인정되는
 것이다. ② 2020.11.15.로 만료일이 속한 2의 A에

위하여 신원주에게 반환하~~라~~ ③ 조.36조 위반으로 등록
불가~~라~~

(2) 반영 A+B의 경우

공시예시규정의 효력이 없는 전사 개시예시된 A로부터 등록
가능한 A+B는 권리성이 ~~있어~~ ④ 조.29조 2항
위반으로 등록 불가~~라~~.

(3) 결론

甲의 출원 P는 등록 불가~~라~~.

IV 실례 (3)

1. 공개특허 존속 (각각)

2020.8.15. 甲의 A의 제로.판매로 인하여 Z의 출원 R
이전에 공개특허가 존속한~~다~~

2. 특허인 권리 검토

(1) 반영 A의 경우

① 비록 甲 출원인의 양도에 있어서는 2020.11.15.조의 ~~특~~
판례가 있음으로도 신원주.학제된 신원주는 문제 ~~없다~~,

② 甲의 2020.8.15.의 승자로 인해 Z의 A는 신원주
상속받아, 조.29조 2항 위반에 해당~~한다~~.

(2) 반영 A+B의 경우

① A+B의 권리사항은 소용다시 양아 2021.10.15.인데,
앞서 2021.9.15.의 甲 출원에 A+B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업주의 및 학제된 산업주의 위반이다. ② 또한 공제
A로부터 쉽게 발명 가능하여 진보성 위반의 항변이
있다.

3. 신문의 해설

2의 출원 R은 등록 불가하다.

[출]

[문제-4]

I. 신문(1) 4.5

1. 관련 규정

(1) 진보성 조 29조 2항

산업발견을 위하여, 공개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특허대상 아니다.

(2) 변경출원 실용신안법 10조

특원인 이익을 위하여, 특허출원으로 실용신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이익제이다.

(3) 변경 조 47조

특원인 구제를 위해, 스스로 명세서·도면을 변경·정정할 수 있는 제이다.

2. C의 구성 부가 쉽다 인정할 경우 권리

(1) 변형특권 제로 이용

① 선행특권자의 경우 전변성 판단에 있어 특허출원
 권리 극히 용이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② 甲은
 변형특권을 통해 $A+B+C$ 를 선행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2) 손해 보상

항쟁 1은 손해 보상하며 해당 기밀유지를 구할 수 있다.

(3) 권리 존속

① 변형특권의 경우 권리 존속 기간에 제약이 없으나
 그 존속기간이 10년으로 한정되어, ② 손해 보상의 경우 권
 리 범위가 좁아진다.

3. C의 구성 부가 쉽지 않다면 인정할 경우 권리

(1) 의견서 제출

A+B에서 구성 C를 부가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은
 의견서로 주장·증명한다.

(2) 불합특권 및 기밀유지 다름

① 항쟁 1과의 다른 발명품을 불합특권에 권리를 존속시
 하고, ② 항쟁 1에 대한 다름은 인정할 수 있다.

II. 실문 (2) 2.0

1. 구성 C 부가 되기 쉬운 경우 2회

(1) 가전제품복합심판 항구 조. 132조제 17

가전제품복합심판은 심판원에 항구하여 가전제품이 복
합하리니 기록 수 있다

(2) 분리불선 및 상정취득으로

한일 가전제품복합심판이 가전제품이면 품목이 많은
항구로 분리불선 과 상정취득으로 기록을 이어나갈
수 있다

2. 구성 C 부가 되기 쉬운 경우 2회

(1) 제삼자 항구 조. 61조제 2

제삼자 항구 항구 항구 1은 기록 보강 가능하다

(2) 변형불선

신용상관으로의 변형불선을 통해 등록받을 수 있다

<이바여영>